

## 한국 기독교윤리학자의 공감, 공생, 공명을 위한 삶과 실천의 과제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윤리학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하라
- III.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IV. 한국인으로서 사회윤리적인 과제를 철저히 감당하라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1>

---

• ABSTRACT •

---

## Tasks for Empathy, Symbiosis, and Resonance in the Life and Practice of Korean Christian Ethicists

Prof., Jeong, Chong-Hun (Yonsei University)

In the current society, empathy for the weak is becoming increasingly scarce. The individualistic way of life is often prioritized over the value of coexist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hear the sound of resonance in a society that lacks empathy and does not value coexistence. As a Christian ethicist, reflecting on my life and academic journey, I would like to challenge my colleagues in Christian ethics on how to produce academic results as a researcher. For Korean Christian ethicists, the first identity is an ethicist, followed by being a Christian and a Korean. They must sincerely and earnestly conduct academic research as ethicists, clarify their identity as Christians, and handle social ethical tasks as Koreans. Korean Christian ethicists must empathize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oexist with people and nature, and strive toward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I hope that Korean Christian ethicist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hopes for Korean society and the world community based on their own identities.

**Key words:** Christian Ethicist, Empathy,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sonance, Symbiosis, World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 시대는 약자에 대한 공감(共感)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불안정한 지위의 개선을 요구할 때 별로 관심이 없다.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절박하게 주장하며 시위할 때 그들과 동조 시위를 하기는커녕 출근 시간을 불편하게 한다며 불평할 뿐이다. 전쟁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최소한의 삶의 환경을 기대하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난민들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돌려보내려 애를 쓰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사회를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3국을 거쳐서 힘겹게 이남 사회까지 찾아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가 않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이성애와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을 하듯이 그들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sup>1)</sup>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생(共生)의 덕목보다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를 틀고 있다.<sup>2)</sup>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 산업화를 이룬 노인 세대와 민주화를 이룬 장년 세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누린 청년세대가 서로를 갈라치며 갈등하고 있다. 성별 간의 차별 역시 여전하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든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

1) “동성애 관련, 금지 불허 퇴출 등 규제강화”,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7512796309>, 접속일 2023.4.8. 한국기독교공보는 2017년 10월 21일자에서 한국교계의 영향력 큰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총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단이 정기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법이라서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결의한 것,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한다는 것,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며, 교회의 직원, 신학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 삽입하기로 한다는 것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계의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3).

채 2등 국민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빈부 양극화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주이고, 부자들에게는 여러 기회가 되고 있다. 남북 간의 장과 갈등과 대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정전한 지 70년이 되지만, 회화 용서, 화해와 공영의 은 아직 어 보인다. 하가 아 해수면이 하고, 수 은 동식 이 하는 가 데 더불어 살아야 할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살만한 환경을 려주자고 외치기는 하지만 생태친화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 시대, 공생하지 않으려는 사회에서 공명(共鳴)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 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그것을 따르려 하는 것이 공명이다.<sup>3)</sup> 공감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이다. 공생이 삶의 목적이라면, 공명은 공생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자 공생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다수는 자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변화시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공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러나 공명을 일으켜야 ‘혼자라는 나약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협력적인 동지애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진행되는 시대적인 문제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서로 공명하며 공동의 과제를 실행할 때만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한 지 35년이 되 다. 1982년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목회를 하려는 일념으로 신학대학원(M.Div.)에 진학했지만, 국내의 어디든 공부하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는 장학금을 받게 된 인연으로

3) 김성희/안효진/이용성, “리즘적 사유를 통한 공명하는 교육과정 생성하기”, 『생애학회지』 12권(2022), 1-19.

1988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윤리학(Th.M.)을 전공했다. 그러나 신학적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가 큰 전공 주임교수를 만나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농촌목회의 꿈을 접는다.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좋은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 유학(留學)을 계획했다. 유학 중에 동서독 통일의 과정을 목격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작은 기여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독일 개신교협의회(EKD)가 1945년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표했던 성명서와 사회백서, 연구서 등을 연구했다.<sup>4)</sup> 드디어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신학박사학위(Dr. theol.)를 취득하고 귀국했던 것이 1995년 12월 20일이 다.

1996년 1년 동안 연세대학교와 장신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했다. 시간강사 1년을 채우지 않고서 1997년 3월 1일 관동대학교 기독교학과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취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 취임한 직후 강릉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윤리실천 동'에 있었고, 지역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영동크리스찬신문'을 창간했으며, IMF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을 결성해서 노숙자와 실직자들에게 쉼터와 일터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강릉에서 3년 6개월 동안 관동대학교 교수와 강릉시 기독교시민으로 생활했고, 2000년 9월 학기부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이자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교수로서 23년째 봉직하고 있다. 이제 정년이 지 않는다. 이 글을 통해서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살아온 삶과 그동안 천(穿鑿)해온 학문적 과정을 돌아보며, 동료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한국인 기독교 윤리학자로서의 삶과 학문함에 작은 도전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Chong-Hun Jeong, #%" '\$+\*)&(\$ \$0, /-\$.%)&(\$ 134%,..\$(%2+/' "'%\$ #5326, %\$) \$7:89" ;"#56"<\$%6, -" '\$6">? #-#\$/2)&(6%\$/"4+6" #5326, %\$, (Frankfurt am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Peter Lang Verlag, 1997)

## II. 윤리학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정체성은 윤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이다. 학자를 수식하는 윤리학은 학문의 한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은 학자에게 있다. 학자는 학문에 대한 내적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학문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학문적 내용을 창의적으로 전개할 근거가 되는 영감(천재적 )이 따라야 한다.<sup>5)</sup> 내적 소명감이 없는 학자는 시 별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학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 기쁨을 경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열정을 동반하지 않는 학자는 학자의 외적 명 을 이룰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가치 있는 일에 사하며 전공 영역에서 기여하는 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감이 따르지 않는 학자는 지식을 전 하는 교육자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학풍을 이루며 후학을 도전하고 제자를 배출하는 명실 부한 학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sup>6)</sup>

학자의 내적 소명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란 를 주 을 뿐 아 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학자의 을 건기 원하신다는 신 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학자의 열정은 자기 학문의 분야에서 논리적이고 섬 세하며 설득력을 갖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각 할 때 을 피 다. 학자의 영감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 기에 하나님께

5) Max Weber, A%)\$/)\$(, (®, ..)" <\$6+®, 김현욱 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동서문 화사, 2020), 233-236.

6) Max Weber, A%)\$/)\$(, (®, ..)" <\$6+®, 231-233. 스 에 의하면, 학자의 자 과 교수의 자 은 별개이다. 학자로서는 어나지만, 교수로서는 한심할 정도로 소양이 부 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학자라도 좋은 교수가 아 라고 평가받으면 그 교수는 사 선고를 받은 것파 다 없다고 다. 그러나 좋은 교수라고 평가를 받지만, 학문적으로는 미 한 교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기에 대학교수는 교육과 연구, 나아가 사회적인 봉사를 당연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행해야 한다.

서 주시는 선 이자 노력의 산 이라 말할 수 있다. 신 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 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자 스스로 제 어디서나 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생 수 없기 때문이다. 발명가 에디 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 던가. 아마도 학문의 에 처음 들어서는 학도(學徒)라면, 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그 가능성을 진해 것이다. 드디어 그가 어 대학의 교수로서 자리를 으면, 학자의 을 제대로 걸었다고 단단 각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 수 학도로서의 수함과 학자로서의 열정을 어 리고 있는 것은 아 까.

이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 하고,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sup>7)</sup> 모든 학문은 생 학적인 유기체처럼 생성과 발전과 소 의 과정을 거 수밖 에 없다. 한국에서 기독교윤리학이 학문 또는 신학(神學)의 한 분야로 생성되어 어 정도 위치를 갖는 것은 선배 학자들이 수고한 덕분이다.<sup>8)</sup>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갈 를 알지 못해 휘청거리는 황에서 그나마 기독교윤리학자들의 진단과 처방을 주시하는 것은 선배 학자들이 수고한

7) 노영 ,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9-37. 노영 은 그의 논제를 다한 후에 한국의 기독교사회윤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이란 나 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먼저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독특한 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며, 한국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신 과 신학을 가지고, 개인윤리의 영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와 제도들의 개선과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변혁에 대해,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성경과 교리적 전통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나 의 사회윤리적 실천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에 대해 우선은 다른 교단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탕으로 하여 목회적이며 사회적인 실천을 책임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러한 실천의 이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 일군의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 과 합리성의 양면을 겸비한 학문을 의미한다.”(34)

8)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정보 자료집』 (서울: 동연출판사, 2014).

결실을 후배와 후학들이 누리는 셈이다. 향후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학자의 노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은 더욱 발전하며 기여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멸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발전과 소멸이 기독교윤리학자로서의 철저함과 책임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무엇보다 윤리학자로서 윤리학의 제반 입장에 균형을 갖고, 보성의 원칙(Prinzip der Komplementarität)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보성이 필요하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때문에 윤리학은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윤리학의 과제는 인간과 사회의 변경 가능성에 제한되고 있을 수 있다. 인간과 사회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면, 윤리학 자체는 중지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sup>9)</sup> 기독교윤리학은

9) M. Honecker, 『Tübingen 1971. 마틴 호네커에 의하면 개인윤리는 인격을 대상으로 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의 주체성과 자율성에서 출발한다. 그 내용은 미덕과 의무에 있다. 그리고 사회윤리는 사회구조와 사회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도덕적 행위의 사회적인 조건과 의무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을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개인윤리가 사회윤리를 간과하면 윤리행위의 사회적, 공동체적인 조건들을 해하게 만든다. 윤리적인 결정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거하고,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개인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수 없고, 책임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정의로 사회구조는 서로의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윤리가 윤리적인 주체를 배제하고 사회구조만 과제로 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인격의 자리에 사회, 기술, 시대정신 등 익명의 것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W. Huber, 『F63\*(\*)\*(,/\*)5+)+/'' F63\*(\*)\*(G+5'' H\$6(I.\*/%)03/'' >\*(%2+/' F3.\*/%2, Hamburg 1987, 15: "기독교 신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다. 그것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변경하는 만큼 외적인 삶의 관계들에 직면한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만큼이나 국가의 평화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이란 전인(全人)을 대하기 때문이다." A. Rich, 『A\*(\*)\*(,/\*)5+)+/'' F63\*(\*)\*(G+5'' H\$6(I.\*/%)03/'' >\*(%2+/' F3.\*/%2, Gütersloh 1984, 129: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적 변혁이



삶의 이 라진 기독교인이 사회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 것인가 하는 개인윤리적인 차원과 정의롭고 평화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회윤리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윤리학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의 구조적인 락과 악마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근사치적으로 가까 사회건설에 필요한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보성이 필요하다. 심정윤리는 예수의 산 수훈에서 출발한다. 예수께서 말씀하 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 39-42)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에 무조건 해 야 한다는 심정윤리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우주적 절대윤리이다. 심정윤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 면, 그것은 행위하는 자의 책임이기보다는 어리석은 인이나 세 의 책임이라고 다. 그러나 책임윤리는 자신이 취할 행동이 가져 게 될 결과를 미리 예 하고, 보다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그러나 책임윤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허용할 위 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학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심정윤리의 지평 위에서 폭력의 악 환을 끊어내는 평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되, 책임윤리의 지평에서 정치가들 못지않게 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세심

---

인간 개인의 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비진리이다. 마찬가지로 인간개인의 내적인 변화가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를 반드시 제거시킨다는 것도 비진리이다.”

10) Max Weber, *F3. %2" . . . )* <\$6+&, 김현욱 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동서문화사, 2020), 317-329.

에 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의 보성 역시 중요하다.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이 제부터인지를 생명의 업성 차원에서 규정한다. 태아의 생명이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생명이든 장성한 어른의 생명이든, 더 이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은 연속된 하나의 생명이며, 어떤 간에도 생명 업성의 정도를 리할 수 없음을 분명 한다.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의 끝이 제인지를 생명의 업성 차원에서 규정한다. 뇌사판정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도구화하는 경우를 거부한다.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이 예수께서 부여한 충만한 생명에 이르도

노력한다. 인간의 생명이 차별당하지 않도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 없는 태로 방치되지 않도 하며,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은 인간 생명의 업성에만 머 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태 생명의 보 과 공생적 책임을 다루는 생태윤리의 차원으로 나아가 기후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살 권리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11)</sup>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변적 유희에 빠지기보다는 제나 실천적 학문성을 지향하며 자신의 윤리적 현장성을 견지하는 학자가 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실천만이 개인과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윤리적 현장에 근거해야만 윤리이론의 공허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 윤리학의 흐 을 과 악하기 위해서 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국내의 동료 학자들의 학

11) 김근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 필자의 경우에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 대 로 학자적인 실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론 (한국기독교공보와 Gospel Today, CBS 기독교방송과 CTS 등)을 현장으로 활용했다. 또한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의 활용을 주저하지 않 다.

문적 결실에 동일한 관심을 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국내의 동료 학자들을 폄하하거나, 외국인 학자들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학문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기독교적 정체성 위에 있는 기독교인과 ‘중간공리’로 소통해야 하는 비기독교인 모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과 방식을 도전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의 으로서 엄한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노파심으로 추가하면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학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 진지하고 성실해야 하며, 편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논문의 작성만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논문의 양적인 면보다 적인 면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 III.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제 정체성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윤리학자를 수식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윤리학자가 일반 윤리학자와 구별되는 출발점이고, 윤리학의 근거 또는 지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Christianity)라는 말은 그리스도(*Χριστός*, Christ)를 어원으로 해서 생성된 말이다. 그리스도는 브리어의 ‘메시아’(*מָשִׁיחַ*, Messiah)를 역한 희랍어로서 ‘기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교이다. 왜 예수를 기 부음을 받은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가? 예수는 세 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 자로서 으며, 하나님과 죄로 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 고 화해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구약성서에서 실제

로 기 부음을 받은 왕, 예 자, 제사장과는 근 적으로 다른 분이 다.<sup>13)</sup> 구약의 왕이 절대권력을 움켜쥐고 백성의 자유를 유린하거나 억압 하며 백성의 섬김을 받 다면, 예수는 지극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스스로 섬기는 왕이 되 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 렸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자체로 실천하며 전한 예 자이 기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곡식을 태우거나 동 을 죽여서 화해를 중재했다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 로 직접 쳐서 화해를 이룬 제사장이 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하는 기독교윤리학자라면, 예수처럼 지극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 그리고 보복의 악 환을 깨뜨리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기독교 신 을 구성하는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우주 만 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을 “보시기에 좋 다”고 선 하심으로써 그것들의 재해야 할 이유를 보증하 다. 이를 위해서 인간을 청지기로 삼아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다른 피조 들과 더불어 공생 할 것을 명령하 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Imago dei)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재가 되게 하 다. 인간 위에 인간이 있어도 안 되고, 인간 아래 인간을 어도 안 되며,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해서 억압과 취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정 한 이스라엘이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와 용서와 헌신을 보여주 다.<sup>14)</sup>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 땅에서 나그

13) 허호익, 『그리스도의 삼직무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네로 살 던 삶의 경 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치 다. 다른 민 , 정 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나그네에게 다 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갖거나 무시하지 말고, 려 나그네가 필 요로 하는 것을 충 시켜 주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새 하늘과 새 땅’(이사야 65: 17-25)의 비전 역시 같은 락에 있다. 억울한 울음소리와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더 이 들리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살인과 억압 과 취가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가 키 나무 의 열매를 먹고, 서로 다른 피조 들이 평화롭게 공 하는 곳이 새 하늘 과 새 땅의 비전이 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 지로 고백하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그분의 궁극적인 뜻과 명령에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 다. 예수를 따 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신 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점 에 대해서는 디 리 회퍼가 ‘값싼 은혜’를 통해서 잘 지적한 있다. “값싼 은혜란 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 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란 뒤따 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sup>15)</sup> 예수를 믿는 자는 직 예수에게 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직 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6)</sup>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를 따 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가 가야 할 이고,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진리 자체이며, 우리가 풍성 해야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예수는 우리의 욕망을 충 시켜 주는 믿음의 도구가

14) Richard Bauckham, *A (3%) E3'J* 이 일 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서울: 새 결 러스, 2023), 116.

15) Dietrich Bonhoeffer, *K, &(3.-§*, 규태, 이신건 김,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5.

16) Dietrich Bonhoeffer, *K, &(3.-§*, 61.

아 라 우리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the Lord)이신 그분을 따 으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며 전한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 회개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중심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 중심성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지금 작은 자들에게 친구로 다가가 고, 누군가 그들의 필요를 충 시켜 주면 그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 다. 그리고 그 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요한복음 14:17)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며(에 소서 1:17),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부여한다(디모데 후서 1:7).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신성한 능력은 우리가 훈련해서 득할 수 있는 것이 아 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값없이 주는 선 로써 우리가 받아 누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고(고린도후서 4:13), 우리를 거 하게 하며(로마서 1:4),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도록 한다(에 소서 1:13).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 의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재로서 살 수 있고, 미래를 희망차게 소망할 수 있다. 더욱이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의 을 가게 하며(고린도전서 12:31),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고린도전서 12:12-27).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 , 영 분별, 방 , 방 통역 등으로 구분되고(고린도전서 12:4-11),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래 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구분된다(갈라디아서 5:22-23). 이때 사랑이 빠진 성령의

은사는 더 이 은사일 수 없고(고린도전서 13:1-3),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더 이 하나의 성령 공동체를 이 수가 없다. 람이 어디에서 불어 와서 어디로 불어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 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게 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사랑하되 특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게 하며, 사람의 방식을 쳐 리고 창의적인 새사람으로 거 나 희망의 근원이 되게 한다.<sup>17)</sup>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모든 편견을 쳐 리고 그분의 자유로 역사에 자신을 전적으로 야 하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신 양심을 포기하거나 '부귀와 명예'라는 우 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신 양심을 포기하는 것을 때 안 끼움을 금할 수 없다. 보수주의는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과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 다. 양 개가 함께 작동해야 새가 수 있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작동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진보가 되어야 하고,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보수가 되어야 한다.<sup>18)</sup>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수나 진보 어 한 진영만을 편들지 않으신다. 러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그 뜻에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때 기독교윤리학자들

17) Leonardo Boff, *L3.M IB6\**, 이정배 김, 『 소서, 성령이여』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2017), 20.

18)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생』 (파주: 나남, 2010)

가 데 양심적 역거부는 ‘여호와증인’의 주장이라서 양심적 역거부를 찬성하는 것은 이단인 여호와증인을 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편 이들이 있 다.<sup>19)</sup> 그러나 양심적 역거부의 전통은 실제로는 산 수훈에 근거한 기독교 평화주의의 전통이 다. 게다가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의 중요함으로 이단의 신도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양심적 역거부가 법으로 인정받게 된 요 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성(性, Sex) 소수자의 문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이다. 이제 기독교윤리학자들만은 교계의 주류입장이나 대 교회 목사들의 관심과 관없이 기독교 래의 정신과 가치를 추적해서 대변해야 한다.

#### IV. 한국인으로서 사회윤리적인 과제를 철저히 감당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세 제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기독교윤리학자가 자신이 위치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Sitz im Lebe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의 이론과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 의 정거리가 되어 세 으로부터 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네이 (Naver)를 하면, 기독교 믿기를 강요하고, 다양성을 중하지 않고, 신 과 과학을 등식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 이 된 기독교를 아내자는 ‘안 기독교’ 이 의 다양한 이 가 활동하고 있다.<sup>20)</sup> 인터 에서 활동하는 수 은 안 기독교 이 의 가자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웃 교들에 대해서 매우 배 적이고, 윤리적인 면이나 세 의 식 면에서 수준 이하에

19) 정 훈,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양심적 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6 (2002), 187-215.

20) “안 기독교”, [https://cafe.naver.com/antichristian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https://cafe.naver.com/antichristian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접속일 2023.4.8.



있으며, 목사에게 맹 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기보다는 적인 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대의 교가 된 개신교가 가 이나 불교에 비해서 국민의 신 도나 호감도 면에서 을 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끄 다.<sup>21)</sup>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한국교회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목사 후보생과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책임감을 야 한다. 론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목사와 신학자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도전적인 글을 다고 할지라도, 아예 칭 조차 하지 않는 무관 심한 청자들과 칭 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청자들 앞에 직 면할 때, 자괴감을 가 수 있다. 그러나 의 문제는 기독교윤리학자들 의 을 떠나있는 것이기에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좋은 을 잘 준 비해서 잘 리겠다는 책임만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는 자기 삶의 자리인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서 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 은 현 가 데 무엇이 문제인지, 제기 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 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 하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학자 르 (Karl Barth)가 ‘한 에 성경, 한 에 신문’을 야야 한다는 이유가 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복합적인 사고와 간학문적인 대화를 해 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론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시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처방해야 하는 것은 아 다. 실제 그 수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윤리학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을 세세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sup>22)</sup> 독일어권에서 가장

21) [2022 교인식조사] 주요 교 호감도 및 교 효능감, 여론 속의 여론 제 209-2호, [https://hrcopinion.co.kr/report?board\\_name=board\\_5\\_2&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410](https://hrcopinion.co.kr/report?board_name=board_5_2&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410), 접속일 2023.4.8.

22)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2014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정보 자료집을 출판하며, 생명의료과학윤리, 사회경제문화윤리, 정의정치평화윤리, 생태여성주의윤

권위있는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계간지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의 고문헌(Bibliographie)을 보면, 윤리학의 기 문제로부터 역사 문제들, 정치 문제들, 경제 문제들, 생명의료 문제들, 미디어 관련 문제들, 결혼과 가정과 성의 문제들, 여성 또는 여성신학 관련한 문제들, 예

또는 세계 교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등 다양한 분야를 세세하게 나누어서 최근 출판된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sup>23)</sup>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 개인은 내로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분야를 구 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시의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는 대한민국헌법 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국가 권력자나 정부에 대해서 저 권을 행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무엘 13장 13절, 14절과 1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과 왕과의 계약이 나 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왕에 대해서는 왕과의 계약을 복 할 이유가 없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제나 우선이 다(사도행전 4:19, 5:29). 예수께서는 진리에 근거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 할 것은 아 해야 한다”(마태복음 5:37)고 가르치 다. 사도 을 역시 하나님의 일군으로 일하지 않는 권 세 은 자에게 복 할 이유는 없다고 보 다(로마서 13:1-4). 가이사의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 던가(마태복음 22:21). 교개혁자

빈 (John Calvin)은 법에 귀 들, 재판관들, 최고 관리들이 정해져 있다면, 이들은 폭군적인 지배자에 반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해 나서야 하며,

---

리 등으로 크게 구분한 있다.

23) G\$)\*&(6%%\* "N6" >0, /-\$.%)&(\$" >\*(%2 (ZEE), Gütersloh 1998, 311-320.

특 하나님에 대한 복을 위협하는 법과 명령을 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4)</sup> 스(John Knox) 역시 저 이 ‘이웃을 위한’ 일이며, 이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악한 자의 폭력 앞에서 보호를 받고 무고한 자의 피 이 아 수 있을 때, ‘폭정에 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다.<sup>25)</sup> 독일의 틀러 정권 아래서 르 (Karl Barth)는 “우리는 거 말쟁이들, 식 자(食言者)들, 살인자들, 방화자(放火者)들의 정부와 관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아서 양심을 구속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스스로 교회의 적(敵)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정부와 관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복 속에서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복 하든지, 아 면 하나님에 대한 복 속에서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불복 하든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sup>26)</sup>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악한 권력자들과 정당성을 실한 정부에 대해서 저 권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사과 의미심장한 사회 동들, 우리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정된 화신학과 민중신학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과정에서 은 도전과 통을 기독교윤리학의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sup>27)</sup> 이는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세계의 신학계와 세계의 기독교윤리학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진다. 무엇보다 한국의 익인간(弘益人間)의 사과 인내천(人乃天)의 사, 천지인(天地人)의 사,<sup>28)</sup> 태극(太極) 사 등은 성서의 정신과도

24) John Calvin, *0/*\*, IV, 20, 31.

25) John Knox, 『스코틀 드 신 고백』, 제14조.

26) Karl Barth, 1938년 기포드 강연.

27)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유경동,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28) 김 균, “지구화 시대와 기독교 지식인의 나아갈 ”,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53. “한국인의 삶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재하는 모든 것과 생명의 교감을 나누며 살아온 천지인 합일의 삶이고, 천지인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를

이 관통하는 것들이다. 왕조시대의 신분제도를 파하고자 발원했던 동학 동, 일 제국주의의 억압과 철폐로부터 봉기했던 비폭력저 의 3.1 독 동,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음으로 거했던 5.18민주화 동,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평화로 정권교체를 이루 던 불 동 등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 던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에 내 을 수 있는 모 적인 사례들이 아닌가. 그리고 김교신 선생이나 류영모 선생 또는 함석헌 선생 등 강단 신학자는 아 지만 우리나라의 양 위에서 만들어진 화신학의 결과 들, 서남동과 안 무, 문익환과 문동환, 김용복과 서 선 등 민중신학자들의 결과 들 역시 기독교윤리학 연구에 있어서는 좋은 재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분단시대 한반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일 제국주의의 강점과 폭력적인 지배 아래 있던 우리 민 이 제2차세계대전의 전으로 다가 온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되 다.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이해관계 가 데 분단된 한반도는 자 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전(Cold War)으로 인해서 분단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 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한국전쟁은 남북의 장과 갈등과 대 을 예화시 고, 정전 태에서의 전쟁을 일 화시 다. 남북에 각각 자리를 은 독재정권들은 분단 황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부정한 정치권력을 공고 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도구로 삼 다.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적으로 규정했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들로부터 전쟁 경

---

이루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모든 재를 살리기 위해 섬기고 비우고 나누고 사는 생명 중심의 삶이다.”

이 없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원수의식이 전수되고 있다. 더욱이 이남에 등장한 보수정권은 론이고, 보수 정치인들의 안보 논리에 의한 반공, 공, 공의 주장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미국의 매카시선풍처럼 이 스(Red Complex)를 한국사회 전반에 이식시 다. 분단의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이념과 가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평화통일의 을 모 하는 것은 동시적인 과제이다. 당장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은 어야 할 산도 을 뿐 아 라, 어 한 이 다른 으로 수 으로 인해서 수된 을 무력화한다. 남북이 장과 갈등과 대 을 추고,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삶의 은 고양될 수 있다. 평화교류에서 출발한 남북은 2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과 1국가 2체제의 국가 연방제를 거치다 보면, 가 1국가 1체제의 중 국가로서 자리를 게 될 것이다. 그 게 자리를 아 가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큰 석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민 모 과 세계모 의 중심에 있는 한 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소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삼는 것은 기독교인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sup>29)</sup>

그 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윤리의 세계적인 지평을 차 단해야 하는 것은 아 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제자매처럼 연결되어 있을 뿐 아 라, 세계적인

29) 필자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통일부에 산하의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법인 이사와 공동대표)와 '조국을 르게'(One Green Korea Movement, OGKM, 법인이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 동을 전개하는 일에 여하고 있다. 이뿐 아 라 지난 20년 동안 연세대학교 탈북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학생들 중심으로 설 된 '통일한마당'이라는 학생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나 특정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 연대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배 적인 민 주의는 특정 국가의 시민을 민 이라는 울 리 속에 게 화 시 고, 자기 민 밖의 국가와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조장시키는 어리석음을 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과 세계 시민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 영을 모 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0)</sup>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세계윤리를 구 한 독일의 가 신학자 한스 (Hans Küng)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sup>31)</sup> 이제부터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적인 지평에서 자유와 함께 정의를 수 하여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자와 권력 없는 자의 차별을 파하고, 기아와 궁 그리고 죽음의 구조를 혁파하며, 인권침해의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동등성과 함께 다원성을 인정하여 민 적, 인 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 을 파하고, 다른 세계에 대한 시와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제애와 함께 자매애도 강조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성을 모 하고, 여성과 남성을 갈라 는 차별을 결하며,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공 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정 하여 군비확장과 군사주의적 구조를 거부하고, 인권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전쟁을 거부하며, 갈등의 침 에 머 기보다 평화를 증진하는 세계 서를 추구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생산성과 함께 환경과의 연대를 모 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파하고,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극복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삶의 양식과 생산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관용과 함께 일치를 도모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

30) 정 훈, 『정치 속에서 피는 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제1부 2장 '기독교인과 나라사랑'에서 애국주의적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살 필요가 있다.

31) Hans Küng, A\$.\*(3), 안명 김, 『세계윤리구』 (왜관: 분도출판사, 2000), 141-144.

과 적개심을 해소하고, 교의 자유를 배하는 편협성을 극복하며, 용서와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문제, 전쟁과 폭력과 러문제, 난민문제, 세계기후문제, 환경재난과 기아문제, 신자유주의와 빈익빈문제, 세계무역과 금 문제 등을 직시하며 기독교윤리학을 연구하고 연대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 V. 나가는 말

우리가 사는 세에서는 생명과 평화,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교들로 인해서 전쟁과 폭력과 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으로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 람교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살육과 증의 역사를 써고 있다.<sup>32)</sup> 역사 속에서 이 교들은 서로를 적대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이으로 살인했고, ‘평화의 하나님’의 이으로 전쟁을 일으으며, ‘사랑의 하나님’의 이으로 증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의 이으로 학한 행위를 수없이 자행했다. 이는 이들 교의 내재적 잘못이기보다는 교 지도자들이 왜곡해 가르거나 신도들이 교의 적 가르침을 해했기 때문이고, 략한 정치인들이 더러 욕망을 위해서 교를 사악하게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의 여정에서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매우 위하다. 성서의 전후 문을 무시하고 특정 구절을 절대화해서 삶의 지침처럼 채택하기 때문이고, 성서의 표피적인 이야기에 머러서 이면의 실제적인 이야기와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이며, 특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

32) Jonathan Sacks, *K3\*%/ "E3'P)"K, 5\$, 김준우 김, 『하나님 이으로 하지 말라』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궁극적인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관심 아래 성서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올 큰 기독교인이라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리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으로서의 인간의 엄성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인정해야 하는 관계성,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책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동체적 돌 의 책임 등을 하나님의 뜻이자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증장애인들, 탈북민들, 외국인노동자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난민들, 성 소수자들 등 공감해야 할 약자들이 주변에 너무 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누구와도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죽음의 황에 인 인간 생명이든 의 위기 앞에 직면한 생태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재로서 재의 이유를 보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공명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혼자 또는 소수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문제라도 지역적 연대와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기회를 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 것 하나도 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인구가 급격 감소하고 있다.<sup>33)</sup> 교를 지지하는 힘은 약화

33) [2022 교인식조사] 교인구 현황과 교 활동,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186>. 접속일 2023.4.8. 한국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 전의 교와 지금의 교 사이의 편차는 라울 정도로 크다. “ 교별로 살 보면, 1년 전인 2021년 11월에 개신교를 믿고 있 던 사람 중에서는 12%가 현재는 믿는 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천주교 신자 던 사람 중에서는 8%는 현재는 믿는 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불교 신자 중에서는 9%가 현재는 믿는 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믿는 교가 없 던 사람 중 96%는 현재도 믿는 교가



되고, 교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강화되는 편이다. 이웃 교들에 비해서 한국개신교의 현실은 더욱 답답하다. 성장 일변도로 려온 한국교회가 위기가 데 있고, 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지는 더욱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동서남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필자가 산적한 은 문제를 동료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떠 기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 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기 해서 한국교회를 위 에 방치하지 않고, 나아가 한국 사회와 인류공동체에 새로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것을 간절 소망하는 이다.

### 참고문헌

Bauckham, Richard. *A(3"%) E3'Jl wDY '3 2 . 『+, ' μ '¶ 6 c z 』. Š · : , s j ' ° 1 [ , 2023.*

Boff, Leonardo. *L3.M" IB'6%\* wW» '3 2 . 『v ] Š , 1 { w¼』. Š · : " ° ~ ı ı , \_ 6 ] , 2017.*

Bonhoeffer, Dietrich. *K, &(€3. - \$ ½<sup>a</sup> ¾. wc ĵ '3 2 . 『, / 'À Á Á 』. Š · : H " ~ ı ı , Š G , 2010.*

Honecker, Martin. *?3/4\$B\$ "\$/\$6" )34%, .\$(%)&(\$" D(\$36%\$"" E6+/'€6, -\$/" \$0, /-\$.\$ = %)&(\$6" I34%, .\$(%2€ Tübingen 1971.*

Huber, Wolfgang. *F63\*\$)\*, /% )5+" +/ "' F63\*\$)\*"" G+5" H\$6(I.\*/%) 03/" >\*(%2" +/ "' F3.%%2€ Hamburg 1987.*

Jeong, Chong-Hun. *#%\$ " '\$+\*)&(\$" \$0, /-\$.)&(\$" I34%, .\$(%2" +/ "' "%\$" #5326, %\$")\$%" 7:89" ;" #6" <\$%6, - " '\$6" >? #-\$/2)&(6%\*\$/" 4+6" #5326, %\$, Frankfurt am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1997.*

Küng, Hans. *A.\$.\*\$(3)€ Ä " Ä '3 2 . 『= < fi/ 6 d 』. Å R : ÆZ Ç È \ , 2000.*

Rich, Arthur. *A(6\*)&(, €\*)\$(%2€" E6+/'., -\$/" %/" '\$6" \*(.\$3.3-%)&(\$6" F\$6)B\$2%0\$€ Gütersloh 1984.*

Sacks, Jonathan. *K3%" %/" E3'P)" K, 5\$€ 2 Ê Ê '3 2 . 『+, ' 'wË o m'k v + ^ ' Ì Á 』. Š · : " ° ~ ı ı , \_ 6 ] , 2022.*

Weber, Max. *F3.%2" ,.)" <\$6+€€ 2 Î Í '3 2 . 『Đ Ĩ o mŠ fl 'W} 』. Š · : A Š K 4 \ , 2020.*

Weber, Max. *A%)\$/) &(, €\*)" ,.)" <\$6+€€ 2 Î Í '3 2 . 『Đ Ĩ o mŠ fl ' K 』. Š · : A Š K 4 \ , 2020.*

*G\$%)\* &(6%€\*" €N6" >0, /-\$.)&(\$" >\*(%2 (ZEE). Gütersloh 1998.*

*2 C Ñ. 『! ¾¶ fl '\$ ~ > 'c † 』. Š · : H " ° ~ ı ı , Š G , 1991.*

*2 1 £ /Ä y Ñ /wÖ 1 . " / Ó O ` \ | / 'Ö " 'ž " + \* ' ĵ Ö %W! 1 + ~ " . 『! @ † G ^ 』 12Ö (2022), 1-19.*

*2 × C. " " 6 4 - H > ~ ~ ı ı ^ ± J fl ' , u Ø ' Û " . 『 ~ ı ı , \ G fi / ' ) 18" ' (2009), 229-257.*



